한국치위생학회지 2010 ; 10(4) : 663-670

#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신선행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Seon-Haeng Shin

Dep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o consider a proper means for the solution.

**Methods** : The population of the research is some randomly chosen health college students located in Seoul City during the period from May 10 to June 11 2010, and the sample of 295 students were recruited as the analysis object group. The data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stress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sults** : 1. Mean scores of employment stress in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male($p<0.01$). 2. Employment stress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ow group of home economy, competence for a schoolwork, personal relations, satisfaction in campus life. 3. In regression analysis, home economy, competence for a schoolwork, satisfaction in campus life were proved as significant factors that is related to the employment stress($p<0.01$). In other words, It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that the lower home economy, competence for a schoolwork, satisfaction in campus life, the higher employment stress level ($p<0.05$).

**Conclusions** : I suggest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that for coping effectively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we will need to open an exclusive employment counsel window for better administration·welfare service in campus. Because of students ar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employment, active effort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for the solution of problem by themselves. Also, we will need to create better academic environment and show more concern, consideration, love in family.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4) : 663-670)

**Key words** :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health

**색인** : 대학생, 보건, 취업스트레스

## 1. 서론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1].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여러조직 가운데서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2008년 대학 진학률이 83.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의 자살 충동 설문조사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 60%가 자살충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취업난(20%)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해 취업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다[2].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월 고용 동향'

교신저자 : 신선행 우) 130-711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전화 : 02-3407-8557, 010-5875-7224 Fax : 02-3407-8659 E-mail : seon@ shu.ac.kr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삼육보건대학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접수일-2010년 7월 21일 수정일-2010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2010년 8월 25일

에 따르면 20대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그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으며, 청년 5명 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한 두 학기씩 졸업을 늦추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다시 취업의 기회를 엿보거나 취업이 용이한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은 교수 문화와 대학생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특수 사회집단으로 새로운 학문, 사상, 전문기술을 창조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이들이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간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대학은 전공 여부를 떠나서 취업의 전제조건이자 지위집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된 경향이 있다[3]. 대학생활은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소양, 인재를 쌓는 진로의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취업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4]. 동아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재학생들의 가장 큰 근심사항은 취업문제, 학점문제, 외국어문제 순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후 취업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5].

이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보건계 학생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우리사회는 건강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요구도 증가, 노령인구 증가, 의료시장 개방압력 등 글로벌화, 개방화로 인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건계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일반계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6-13]는 일부 있었으나 보건계열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최근 보건계열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련변인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5월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보건대학 졸업예정자 2,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총 310명 가운데 응답이 불분명한 15명을 제외한 총 29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취업스트레스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14]을 기초로 하여 황[4]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학업, 성격, 학교환경, 가족환경 4개 영역에 각 5문항씩 구성하여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 가정형편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수준은 t-test,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수준은 ANOVA test를 하였다. 취업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과는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취업스트레스 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0.85, 성격 스트레스 0.83, 학교환경 스트레스 0.84, 가족환경 스트레스 0.85, 전체 취업스트레스 0.7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자 86.1%, 남자 13.9%이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 42.4%, 3학년 57.6%이었다. 가정형편은 "중 이상" 80.3%, "하" 19.7%로 "중 이상" 집단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학업성취도는 중 69.5%, 하 20.0%, 상 10.5%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상 24.7%, 중 71.2%, 하 4.1%이었고, 대학생활 만족도는 상 7.1%, 중 62.0%, 하 30.8%로 모두 "중" 집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분류 | 빈도(%) |
|---|---|---|
| 성별 | 여 자 | 254(86.1) |
| | 남 자 | 41(13.9) |
| 학년 | 2학년 | 125(42.4) |
| | 3학년 | 170(57.6) |
| 가정형편 | 중 이상 | 237(80.3) |
| | 하 | 58(19.7) |
| 학업성취도 | 상 | 31(10.5) |
| | 중 | 205(69.5) |
| | 하 | 59(20.0) |
| 대인관계 유능성 | 상 | 73(24.7) |
| | 중 | 210(71.2) |
| | 하 | 12(4.1) |
| 대학생활 만족도 | 상 | 21(7.1) |
| | 중 | 183(62.0) |
| | 하 | 91(30.8) |
| 전체 | | 295(100.0) |

## 3.2.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여자 2.96±0.56, 남자 2.65±0.65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는 여자 2.72±0.58, 남자 2.69±0.72로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성격 스트레스($p<0.01$), 학교환경 스트레스($p<0.001$), 가족환경 스트레스($p<0.05$)에서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2〉.

표 2.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변수 | 성별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전 체 | | | | 3.173 | 0.002** |
| | 여 | 254 | 2.96±0.56 | | |
| | 남 | 41 | 2.65±0.65 | | |
| 학 업 | | | | 0.288 | 0.774 |
| | 여 | 254 | 2.72±0.58 | | |
| | 남 | 41 | 2.69±0.72 | | |
| 성 격 | | | | 2.934 | 0.004** |
| | 여 | 254 | 3.22±0.82 | | |
| | 남 | 41 | 2.80±0.97 | | |
| 학교환경 | | | | 4.016 | 0.000*** |
| | 여 | 254 | 3.09±0.72 | | |
| | 남 | 41 | 2.59±0.75 | | |
| 가족환경 | | | | 2.153 | 0.032* |
| | 여 | 254 | 2.82±0.79 | | |
| | 남 | 41 | 2.53±0.88 | | |

* P-value by t-test, * $P<0.05$, ** $P<0.01$, *** $P<0.001$

## 3.3. 가정형편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가정형편에 따른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중 이상" 2.87±0.57, "하" 3.13±0.57로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중 이상" 2.67±0.58, "하" 2.89±0.64로 가정형편 하위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p<0.05$). 성격 스트레스는 "중 이상" 3.10±0.86, "하" 3.40±0.77($p<0.05$)이었고,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중 이상" 2.68±0.77, "하" 3.20±0.84($p<0.001$)로 나타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성격, 가족환경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두 집단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표 3〉.

## 3.4. 학업성취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따른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상 2.60±0.54, 중 2.90±0.57, 하 3.15±0.55로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상 2.25±0.55, 중 2.69±0.57, 하 3.02±0.56로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

표 3. 가정형편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변수 | 분류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전체 | | | | 8.713 | 0.003** |
| | 중 이상 | 237 | 2.87±0.57 | | |
| | 하 | 58 | 3.13±0.57 | | |
| 학업 | | | | 3.787 | 0.014* |
| | 중 이상 | 237 | 2.67±0.58 | | |
| | 하 | 58 | 2.89±0.64 | | |
| 성격 | | | | 6.327 | 0.019* |
| | 중 이상 | 237 | 3.10±0.86 | | |
| | 하 | 58 | 3.40±0.77 | | |
| 학교환경 | | | | 2.246 | 0.991 |
| | 중 이상 | 237 | 3.02±0.75 | | |
| | 하 | 58 | 3.02±0.72 | | |
| 가족환경 | | | | 13.395 | 0.000*** |
| | 중 이상 | 237 | 2.68±0.77 | | |
| | 하 | 58 | 3.20±0.84 | | |

* P-value by t-test, * P<0.05, ** P<0.01, *** P<0.001

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격 스트레스는 상 2.72±0.84, 중 3.14±0.82, 하 3.45±0.89로 학업성취도 상위집단에서 성격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유의성을 보였다(p<0.01). 그러나 학교환경, 가족환경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와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 3.5. 대인관계 유능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유능성에 따른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상 2.72±0.67, 중 2.99±0.53, 하 3.05±0.63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좋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에서 성격 스트레스는 상 2.84±0.89, 중 3.27±0.80, 하 3.10±1.04(p<0.01)이었고, 학교환경 스트레스에서는 상 2.81±0.84, 중 3.08±0.70, 하위 집단 3.20±0.74(p<0.05)로 나타나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성격,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유의성을 보였다. 반면에 대인관계 유능성과 학업, 가족환경 스트레스와는 집단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표 5>.

표 4. 학업성취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변수 | 분류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전체 | | | | 9.914 | 0.000*** |
| | 상 | 31 | 2.60±0.54 | | |
| | 중 | 205 | 2.90±0.57 | | |
| | 하 | 59 | 3.15±0.55 | | |
| 학업 | | | | 18.561 | 0.000*** |
| | 상 | 31 | 2.25±0.55 | | |
| | 중 | 205 | 2.69±0.57 | | |
| | 하 | 59 | 3.02±0.56 | | |
| 성격 | | | | 7.787 | 0.001** |
| | 상 | 31 | 2.72±0.84 | | |
| | 중 | 205 | 3.14±0.82 | | |
| | 하 | 59 | 3.45±0.89 | | |
| 학교환경 | | | | 2.439 | 0.089 |
| | 상 | 31 | 2.81±0.69 | | |
| | 중 | 205 | 3.00±0.75 | | |
| | 하 | 59 | 3.17±0.76 | | |
| 가족환경 | | | | 2.526 | 0.082 |
| | 상 | 31 | 2.64±0.85 | | |
| | 중 | 205 | 2.75±0.79 | | |
| | 하 | 59 | 2.98±0.84 | | |

* P-value by ANOVA test, * P<0.05, ** P<0.01, *** P<0.001

표 5. 대인관계 유능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변수 | 분류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전체 | | | | 5.557 | 0.004** |
| | 상 | 73 | 2.72±0.67 | | |
| | 중 | 210 | 2.99±0.53 | | |
| | 하 | 12 | 3.05±0.63 | | |
| 학업 | | | | 2.360 | 0.096 |
| | 상 | 73 | 2.63±0.63 | | |
| | 중 | 210 | 2.72±0.56 | | |
| | 하 | 12 | 3.03±0.91 | | |
| 성격 | | | | 7.223 | 0.001** |
| | 상 | 73 | 2.84±0.89 | | |
| | 중 | 210 | 3.27±0.80 | | |
| | 하 | 12 | 3.10±1.04 | | |
| 학교환경 | | | | 3.827 | 0.023* |
| | 상 | 73 | 2.81±0.84 | | |
| | 중 | 210 | 3.08±0.70 | | |
| | 하 | 12 | 3.20±0.74 | | |
| 가족환경 | | | | 2.199 | 0.113 |
| | 상 | 73 | 2.61±0.83 | | |
| | 중 | 210 | 2.84±0.79 | | |
| | 하 | 12 | 2.86±0.87 | | |

* P-value by ANOVA test, * P<0.05, **P<0.01, ***P<0.001

### 3.6.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상 2.45±0.65, 중 2.89±0.55, 하 3.08±0.57로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보면, 대학생활 만족도 상위집단이 중, 하위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p<0.001$), 성격 스트레스($p<0.05$), 학교환경 스트레스($p<0.001$), 가족환경 스트레스($p<0.01$)가 모두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표 6.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변수 | 분류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취업 | | | | 11.162 | 0.000*** |
| | 상 | 21 | 2.45±0.65 | | |
| | 중 | 183 | 2.89±0.55 | | |
| | 하 | 91 | 3.08±0.57 | | |
| 학업 | | | | 9.415 | 0.000*** |
| | 상 | 21 | 2.34±0.75 | | |
| | 중 | 181 | 2.66±0.56 | | |
| | 하 | 91 | 2.90±0.58 | | |
| 성격 | | | | 4.255 | 0.015* |
| | 상 | 21 | 2.76±1.04 | | |
| | 중 | 183 | 3.12±0.83 | | |
| | 하 | 91 | 3.32±0.82 | | |
| 학교환경 | | | | 11.085 | 0.000*** |
| | 상 | 21 | 2.47±0.56 | | |
| | 중 | 183 | 2.96±0.69 | | |
| | 하 | 91 | 3.25±0.81 | | |
| 가족환경 | | | | 5.136 | 0.006** |
| | 상 | 21 | 2.25±0.78 | | |
| | 중 | 183 | 2.80±0.79 | | |
| | 하 | 91 | 2.86±0.82 | | |

* P-value by ANOVA test, * $P<0.05$, ** $P<0.01$, *** $P<0.001$

### 3.7. 일반적 특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전체 취업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에서 개인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았더니, 가정형편($r=-0.175$), 학업성취도($r=-0.252$), 대인관계 유능성($r=-0.183$), 대학생활 만족도($r=-0.253$)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와는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표 7〉.

표 7. 일반적 특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 변수 | 가정형편 | 학 업 성취도 | 대인관계 유 능 성 | 대학생활 만 족 도 |
|---|---|---|---|---|
| 전체 | -0.175** | -0.252** | -0.183** | -0.253** |
| 학업 | -0.143* | -0.333** | -0.111 | -0.244** |
| 성격 | -0.136* | -0.223** | -0.180** | -0.163** |
| 학교환경 | 0.001 | 0.128* | -0.156** | -0.260** |
| 가족환경 | -0.255** | 0.125* | 0.114 | -0.135* |

* $P<0.05$, ** $P<0.01$

### 3.8.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14.1%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p<0.01$)이었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표 8〉.

표 8. 취업스트레스 회귀분석

| 변수 | 취업스트레스(n=295 ) | | | | |
|---|---|---|---|---|---|
| | 비표준화 계수 (B) | 표준 오차 | 표준화 계수 (Beta) | t | P |
| 가정형편 | -0.205 | 0.077 | -0.149 | -2.660 | 0.008 |
| 학업성취도 | -0.185 | 0.061 | -0.172 | -3.035 | 0.003 |
| 대인관계 유능성 | -0.112 | 0.067 | -0.095 | -1.675 | 0.095 |
| 대학생활 만족감 | -0.195 | 0.058 | -0.190 | -3.384 | 0.001 |

$R^2=0.141$, $F=11.873$, $P=0.000$

## 4.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업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1]. 대

학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이고 대학생들은 대학시절 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장래 계획을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여러가지 발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15].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에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학문적 지식 습득과 기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의 재학시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느끼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하위영역 요인인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김[1], 황[4]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 취업문이 더 좁다는 점과 일부 학과 특성상 국가고시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 대한 사고의 발전이 현실적 시기에 들어오면 경제적, 사회적 상황, 직업기회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가정형편과 전체 취업스트레스 그리고 하위영역 요인인 학업, 성격, 가족환경 스트레스와는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적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취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는 김[1]의 연구와 본인이 지각하는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황[4], 박[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정 형편 자체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 이[1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하위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조절 학습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하며 전공학과 및 학교차원에서도 동기부여를 비롯한 학업성취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17]. 청년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시기에는 학생들에게 자율이 많이 허용되어 초기에는 대인관계로 인한 부적응이 많이 초래될 수 있다[18].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하위집단에서 전체 취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적응성, 응집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대인 관계 수준이 높다는 김[18]의 연구와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자녀는 대인관계 차원에서 더 높은 자아동일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한 김[19]의 성적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때 균형잡힌 가족 체계에서 가족의 관심과 더불어 학교와 사회에서는 자율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생활을 하여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하위집단에서 취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모두 높게 나타나 황[4], 이[16], 정[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은 일종의 사회생활로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현장에 취업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교행정·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연구인 점 등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관련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련변인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보건대학 졸업예정자 2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도 하위집단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p<0.01$)이었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현장에 취업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교행정・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혜정.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2. 강경훈.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이혜경.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정한, 황혜자, 설기문, 박영태, 최은영. 대학생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22:39-104.
6. 류진혜, 김태성.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998;16(1):211-232.
7. 나희진.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박성환. 특수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 박선희, 박현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09;6(1): 67-81.
10. Sinclair RR, Martin JE, Croll LW. A threat-appraisal perspective on employees' fears about antisocial workplace behavior. J Occup Health Psychol. 2002;7(1):37-56.
11. Virtanen P, Rantalaiho L, Koivisto AM. Employment status passages and psychosocial well-being. J Occup Health Psychol. 2003 Apr;8(2):123-130.
12. McManus IC, Keeling A, Paice E. Stress, burnout and doctors' attitudes to work are determined by personality and learning style: a twelve year longitudinal study of UK medical graduates. BMC Med. 2004 Aug ;18(2):29.
13. Di Donato A, Di Giampaolo L, Forcella L, et al. Occupational stress and job insecurity in men working in a university. G Ital Med Lav Ergon. 2007;29(3):808-810.
14. Shepherd M, Cooper B, Brown A.C, & Kalton G.W.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5. 박재원, 서수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련연구.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2006;26:131-147.
16. 이미경.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7. 한광희.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8. 김미혜.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9. 김남순. 한국가정의 부모-자녀간의 동일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20. 정해은. 오산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오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5:89-105.